

들리시나요? 냇물소리

임 의 진 (목사, 전남 강진 남녘교회)

겨우내 목마른 땅, 비를 마시고 있나요
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
가늘게 내리다가 굵게 내리다가...
예배드리러 온 손님들 있어서 같이 놀았고
(매주 한 팀 이상씩 꼭 같이 합니다
주5일 근무제가 된다면 손님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)
모두 떠나시고 오후엔 이런 저런 일들 처리했습니다

이번 주는 고요하게 지내면서 글을 쓰려고 합니다
예수도 손질 해야하고 붓다도 2권 짜 다듬고 있어요
수필도 몇 편 다듬어야 합니다
동네 아저씨들이랑 간만에 막걸리 약속도 있고
강진 답사 안내와 장성 가는 일도 있고
어떤 대학교 동아리의 특강도 있습니다
계속 사양했는데, 학생들이 찾아와 조르네요

금방 3월 1일이겠군요 .
닫힌 문을 자주 열어야겠습니다
창호 문에 구멍을 내서라도
보아야 할 바깥 풍경이 많습시다
3월은 냇물소리 달, 냇물소리 듣고
냇물 흐르는 물길을 보려면요

그대의 가슴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요?
누구 긴 누구졌어요, 어깨춤이죠
여기 나 말고 다른 누구 있습니까?